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3년 8월 18일(금) ---(윤력 7월 3일)--- Пятница 18 августа 2023 г. № 32 (1204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8월 12일 서울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인텍스(관장 김지연)에서 이예식 기자 초청 사진전 "사할린, 기록되지 않은 역사" 전시가 시작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이예식 새고려신문기자와 함께 <작가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교수 제공)

사할린주한인협회, 비공개회의에서 새 회장 선거

8월 18일(금) 오후 3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시 대표자선거회의가 진행된다. 이날 새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위원, 감사 등을 선출한다.

주한인협회의 회장 선거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회장 후보는 사할린주 내 거주, 35세 이상이며 65세 미만의 한인, 고등 교육 (대학 졸업장), 대학에서 한국어 기초 (혹은 그 이상)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한인협회 대표자선거회의 준비조직위원회는 후보로 박순옥 (전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씨와 이 세르게이 젠나모위츠(사할린주한인청년회 회장) 씨를 승인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대표자 선거회의(컨퍼런스)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고 회의에는 자격 있는 대표자 외에 언론인을 포함해 초대 받은 자만 참가할 수 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공식적 상징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흰색-파란색-빨간색 국기는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합니다. 이에 조국의 함대 형성과 러시아 무기 승리의 역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삼색은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현재는 우리 국가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고, 국익을 수호하며, 미래 차세대 앞에 책임감을 일깨우고, 이들을 위한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근로, 과학, 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도록 고취시킵니다. 삼색기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러시아를 수호하는 우리의 아들과 형제들의 군복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과 시민의식에 여러분과 동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그 상징인 국기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국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주 정부 청사, 파르후트지노브 전 지사 추모 전시회 열려

8월 17일 오후 다섯시에 사할린 주 정부 청사 로비에서 "이.페.파르후트지노브, 늘 일에 몰두, 늘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가 열렸다. 이는 주지사와 그의 일행이 사망한 지 20주기가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전시회에 전시된 사진들은 주지사의 인생 여정을 보여준다.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는 티몴스카야 발전소의 평범한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예비 주지사는 전 노조 레닌주의 공산주의 청년 연합의 티몴스스크 지구 위원회 초대 비서, 네웰스크 시 집행위원회 위원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을 역임했다. 파르후트지노브는 1996년과 2000년 주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파르후트지노브 주지사의 임기 동안 사할린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2위에 올랐고, 잘 알려진 사할린-1 및 사할린-2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고리 파블로비치 파르후트지노브는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사할린 주민들의 문제를 직접 현지인들에게 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쿠릴열도로의 마지막 출장은 주지사와 그의 팀에게 비극을 안겨주었다.

2003년 8월 20일, 캄차트카에서 승무원 3명과 파르후트지노브 주지사가 이끄는 사할린주 행정부 임원 16명이 탑승한 Mi-8 헬리콥터가 사라졌고 8월 23일에 발견되어 추락되었다는 사실로, 탑승한 승무원과 승객 모두가 사망했다.

이번 전시회는 주향토박물관과 사할린 주립역사고문서보관소의 소장품인 사진 등을 전시한다.

전시회는 2023년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약 5,000건의 결손 도로 수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로공사의 실행 계획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게 보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지역 예산을 들여 59,000m²의 길을 보수공사했다. 이 작업과 동시에 사할린에서는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예산으로 남은 결손 도로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3년 연속 각 지역에서는 사할린주 예산으로 도로 보수공사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도로 아스팔트 공사 이후 발견되는 결함은 지자체가 직접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지자체장이 지방 예산을 절약하도록 도우며, 이 예산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장들에게 이런 기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제때에 일을 완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지사는 덧붙였다.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670km 이상의 도로를 조사한 가운데 500개의 도로 결손과 웅덩이를 발견해 제거했다. 그중 유즈노사할린스크는 27,126m², 오후는 6,372m², 우글레고르스크는 5,284m² 결손 도로를 제거해 선두에 서있다. 사할린주 도로·교통부 에두아르드 리제1차관은 "현재 지역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모든 도로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새로이 발견되는 결손 부분은 현재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제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 포럼 결과 발표

러시아청년청 이벤트플랫폼의 <오스트로와(섬들)>청년포럼이 사할린에서 종료됐다.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행사에 14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 500명이 전국 88개 지역을 대표해 참가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오스트로와>, <애국교육의 오스트로와>, <인재들의 오스트로와> 등 3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 참가했다. 14세-17세 청소년들을 위한 <첫 오스트로와> 코스도 마련됐다. 또한 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유명 인사들이 연 활동교실과 교육, 회의가 조성됐고, 러시아 청년 장려금 경연이 열려 경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연방 청년청에서부터 러시아 청년 장려금 경연의 우승자들이 발표됐다. 총 수여 기금은 550만 루블리로 이에 11명이 장려금을 받게 되며, 그중 사할린 주민들의 기획 실행을 위해 180만 루블리가 배당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서울 한복판에서 사할린을 만나다

지난 8월 12일 서울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인텍스(관장 김지연)에서 이예식 기자 초청 사진전 "사할린, 기록되지 않은 역사" 전시가 시작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이예식 새고려신문 기자와 함께 '작가와 대화'를 진행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입국이 늦어져 15일에 개최된 <작가와 대화>는 갤러리 의자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충남 서천, 인천, 안산에서 온 사할린 동포들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2015년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전시를 했던 인천시립 한국이민사박물관 김상열 관장, 이예식 기자의 "귀환"을 출판한 이규상 눈빛출판사 대표와 안미숙 갤러리 인텍스 대표, 이병일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임엘비라 사할린국립대 교수, 정근식 전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 임성숙 사할린 연구자, 김진석 사진가 등 사할린과 교류가 있었던 분들도 자리

를 함께 했다. 식전 행사로 아리랑 노래와 대금연주가 이어졌고, 김지연 관장의 사회로 이예식 기자의 인사말과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작가와 관객과의 대화는 올해 인천으로 영주귀국한 이진선(Ли Тин Сон)씨가 소감을 이야기하는 등 동포들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특히 김봉녀 어르신 말씀은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일본지명 기타코자와에 살았던 어르신은 열살에 해방을 맞았는데, 피난가는 혼란속에서 아버지가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해주었다. 일본도로 목을 내리쳐 살해당했다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최상구 대표가 우글레고르스크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러한 동포들의 증언은 이번 사진전을 기획한 의미와 잘 부합했다. 사할린 동포의 삶과 역사가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포들의 증언과 이예식 기자의 사진은 그만큼 중요하다. 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기록한 이예식 기자의 사진은 그 자체로 기록이자 역사이다. 전시를 시작한 12일에는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의 권경석회장, 박정자 김포회장, 문정현 인천회장, 박영신 오산회장이 첫 방문을 하였고, 정영순(Janna Ten)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과 손정진 인천고려인문화원 대표도 이날 방문하였다. 사할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CIS지역 동포들의 방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문한 동포들이 사진속에 담긴 가족과 친척의 모습을 찾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이렇듯 동포들의 순간을 포착해온 이예식 기자의 사진은 서울 한복판에서 사할린으로 통하는 하나의 열린 관문이 되고 있다. (글: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사진: 임엘비라, 사할린국립대 교수 제공)

'사할린의 날개' 축제 개최

제9회 <사할린의 날개> 축제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코르사코브 지역의 푸쉬스티 비행장에서 개최된다. 3년간 중단되었던 항공 및 음악 축제가 올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다시 부활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 군사 애국, 교육은 물론 뮤지컬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사의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섬의 록 밴드, 라리사 돌리나 베라이어티 아카데미의 아티스트, 러시아 유명 음악 그룹이 축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2023년 <사할린의 날개>에서는 '록 신드롬', '에니마찌야', '수르가노바와 오케스트라' 등 세 개의 주요 팀이 한꺼번에 출연할 예정이다.

체육 문화 및 스포츠 존에서는 양궁 및 사격장, 오토바이 및 자동차 전시, 오토바이 쇼 및 오토 드리프트, 무인 항공 플랫폼, 마스터 클래스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사할린의 날개>의 일환으로 엔듀로 스포츠 행사 'NPR 프롤로그'와 익스트림 레이스 '사할린 프론티어'가 열린다.

군사 애국적 축제의 방향은 장비와 역사적인 무기 전시로 채워질 것이다. 교육 플랫폼에서 방문객들은 어린이 테크노파크 '관토리움'의 성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축제에는 박람회, 트램펄린 파크, 별문 쇼, 프리스타일 모터바이크, 모터글라이딩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체육인의 날 기념

8월 1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체육인의 날을 기념했다. 가가린 문화·휴식 시공원의 23개 스포츠 및 체력 훈련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펼쳐졌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에서 전했다.

사할린주 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는 동양무술 종목 스포츠 예비학교의 김 아니스타시아 교감에게 공로상을, 러시아 역도 종목 선수 배지와 증명서를 스타니슬라브 라키팀에게, 태권도 부문 청각장애인 선수 김 이고리에게 증명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사할린주 연방 상원 의원인 안드레이 하포츠킨은 전국 스키 점프 종목 영역의 타치야나 로신스카야와 역도 종목의 미하일 웨르바쿠에게 스포츠 심판 배지와 증명서를 수여했다. 사할린주 스포츠부 아르쭘 포드 슈발로브 장관은 '토네이도' 스포츠 클럽위원회 대표 리 파벨과 '스파르타크' 전국 종합 체육 및 스포츠 검사센터 교관이자 방법론가인 겐나지 라히모브와 알렉산드라 톨스티히나에게 사할린주 스포츠부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공원을 찾아온 방문객들은 사할린 선수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여러 가지 활동교실에 참여하며, 여러 스포츠 종목에 참가해 보기도 했다.

사할린의 선수들은 '철인' 파워리프팅, '오렌지볼' 농구, 핸드볼, 브레이크 댄스, 팔씨름, 해변가 모래판 삼보, 자전거 경주, 유아 자전거 굴리기, 러시아 시합으로는 처음으로 권투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활동교실에서는 다트, 컬링, 테니스, 밧줄타기, 셉서핑, 페인트볼을 해볼 수 있었고, 보드 스포츠 게임, 스트리트 워키아웃, 스트리트 리프팅, 폴링, 산악 자전거 종목들 행사장에 참가할 수 있었다.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소셜 댄스' 기획과 '챔피언' 스포츠 클럽 및 '월드 클래스' 휘트니스클럽의 수업에 참여했고, 근로, 전투 표준의 성취에 자신의 체력을 점검할 수도 있었다. 산책로에는 다양한 시대에 사할린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탠드가 설치된 '사할린 스포츠의 전설들' 전시회를 볼 수 있었다.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2 августа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развернулось на 23 спортивных и физкультурных площадк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вручил почётную

грамот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директора по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е СШ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Анастасии Ким,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 знак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тяжёлой атлетике Станиславу Ракитину 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тхэквондо) Игорю Ким. Сенатор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передал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 знак спортивного совет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категории по прыжкам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Татьяне Лосинской и по тяжёлой атлетике Михаилу Щербаку.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наградил почётной грамотой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Павла Ри и инструкторов-методист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тестирования ВФСК ГТО «Спартак» Геннадия Рахимова и Александру Толстихину.

Посетител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в этот день могли посмотреть выступления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либо просто проверить себя в том или ином виде спорта.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ауэрлифтинге «Железный человек», баскетболе «Оранжевый мяч», гандболе, брейкдансе, армрестлинге, пляжном самбо, беговелогонкам, боксе и впервые — в русской борьбе.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артсу, керлингу, теннису, хождению по канату, тренировки по сап-сёрфингу и пейнтболу, 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спортивных настольных игр, воркаута, стритлифтинга и пилонного спорта, маунтинбайка. Гости парка могл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Социальные танцы», занятиям от спортклуба «Чемпион» и фитнес-клуба «WorldClass», а также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в выполнении нормативов ГТО. Прогуливаясь, можно был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ыставкой «Легенды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тенды с информацией об островных деятелях спорта разных эпох.

Невельск 시장, 익사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한 사할린 주민 5명에게 포상 수여

Невельск 구역의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을에서 익사 위기에 처한 세 명의 아이들을 구한 사할린 주민들에게 알렉세이 샤벨니 네벨스크 시장이 포상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자칫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8월 1일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을 인근 해안에서 9세, 14세 남아 두 명과 9세 여아 한 명이 수영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고, 순간적으로 아이들은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빠져들어갔다. 이때 이곳으로 놀러온 온 남성 일행과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도왔다.

"아이들을 직접 구조에 나선 남성 3명은 아니와 지역 타라나이 마을에서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다. 이날 3명의 남성은 자연으로 가서 어디에서 휴식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남성 3명은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을 해안가에 머물기로 했다. 이는 정말 뭔가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알렉세이 샤벨니 시장이 자신의 텔레그램에 썼다.

시장은 구조에 뛰어든 사람들을 만나 진정 큰 일을 해냈다고 치하하며, 그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결과는 진정 기적적이었다. 그는 용감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세르게이 가브릴코는 유즈노사할린스크 3호 김나지아의 체육 교사이자 운동선수이다.

안드레이 예를리는 장교로서 특수 군사작전 구역에서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현재는 재활 중이다.

클럽 프르센토는 아니와 지역 '사할린 에네르고' 송출망 지점 기사이며, 세르게이 메쉬코브는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을 지역 관리과 운전자이고, 알렉산드르 글로빈은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을 주민으로서 '네벨스크 공공사업망'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Мэр Невельска наградил пятерых сахалинцев за спасение детей от утопления

В Невельске наградили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спасли троих детей от утопления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мужчинам вручил мэр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История, которая могла закончиться трагично, произошла 1 августа на побережье у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 где купались два мальчика 9 и 14 лет, а также девятилетняя девочка. В этот день на море были большие волны, и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дети не смогли с ними справиться и стали тонуть. На помощь им пришла компания мужчин,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туда отдыхать, 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Трое из ребят, принявши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спасении детей, друзья с детства, живут в селе Тарана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т день компания поехала на природу и решала, какое место для отдыха выбрать.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по счастливой случайности, молодые люди решили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побережье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 И как оказалось совсем не зря», — написал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Мэр встретился со все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и отметил, что они совершили настоящий подвиг. Он назвал их героями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а исход происшествия — настоящим чудом. Также он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о каждом из отважных мужчин: Сергей Гаврилко — спортсмен, учител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Эрли — офицер, служил в зоне СВО, где получил ранение,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реабилитацию; Глеб Фурсенко — мастер филиала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е сети»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й Мешков — водитель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тдела по управлению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 Александр Глобин — житель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 работает в МУП «Невельские коммунальные сети».

(8면에 계속)

사할린주에서 갓 잡은 송어 약 100톤 판매

태평양 연어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할린과 쿠릴 주민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송어를 공급했다. 송어류는 지난해 유사시기보다 38톤 더 판매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지방 정부회의에서 사할린 주민들이 수산물을 쉽게 얻도록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줄을 서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사할린주 수산부 장관 이완 라드첸코의 보고에 따르면 생선 판매 기간에 송어가 단연 많이 팔렸다. 사할린과 쿠릴 전 지역에서는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신선한 생선 직판이 조직됐다. 현재 송어는 1kg당 90루블리로 소매점보다 몇 배가 저렴하다. 사할린주 전 지역들이 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가운데 가까이 있는 일련의 지역들에서는 대량의 신선한 생선 판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글리키 지역에서는 아직 판매량이 적은 편이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주지사의 '배려, 보호, 존중' 기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지사는 올해 1000톤의 생선을 직접 잡아 직판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현재까지는 584톤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유사기간보다 2배나 많은 양이다. 연어종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어획량의 증가로 낮아진다. 사할린주 마을과 도시에서 어획한 생선 공급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주관하고, 수산물을 어획한 순간부터 단시간에 지방에 공급돼 소매점에서 생선 판매가 이뤄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회 '라면'대회 진행



지난 1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주최하에 제2회 <라면>미식축제가 펼쳐졌다.

축제는 일본에서 온 김영금 안문가의 조선춤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축제 손님들을 환영하는 '사할린 한인시한인회의 천영근 회장'과 유영희 부회장은 «이번 축제도 역시 좋은 먹거리, 구경거리, 놀거리가 많아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이라고 기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알렉산드르 보로위코브 의원은 관객들을 따뜻이 맞아주며, 축제가 있는 8월 12일은 러시아에서 체육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사할린주는 러시아의 지역에서 스포츠발달로 우수한 지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로 동양 무술인 태권도, 당수도 등 선수들의 시범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사할린주 태권도협회(MFT), 사할린주 종합격투기(MMA) 선수들의 시범을 재미있게 본 관객들은 특히 사할린주 태권도 협회의 안수학 회장의 주먹격과 실력, 사할린주 종합격투기 부회장 니콜라이 무힌 사범의 '목으로 쇠 막대기를 구부리'는 실력에 대단히 놀라워 하였다.

이날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한 민족단체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키르기즈 무용, 타타르언어로 부르는 노래, K-팝 춤 등이 관객들의 기분을 한층 돋구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소속 '무궁화'합창단,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인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의 공연은 한민족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였다.

'아리랑' 및 '희망'무용단은 이날 관객들을 위해 전통 무용 체험교실도 열었다. 축제는 라면 빨리 먹기, 노래 따르기 등 즐거운 게임으로 이어졌다.

<라면>축제인만큼 이날 시식회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 라면을 맛볼 수 있었고 그외 김치전, 해물전, 햄전, 고추 장조림 등 여러 한식 요리와 반찬을 먹을 수 있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시식회에 라면 30박스(거의 1000인분), 컵라면 11박스(222인분)를 먹었다고 한다. 맑고 좋은 날씨에 야외 축제를 찾아온 손님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껏 기분을 즐겼다고 한다.

(취재: 포구다예프 드미트리 경승기자, 배순신 본사 기자) (사진: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코르사코브에서 광복 78주년 기념행사 열려

지난 12일(토) 코르사코브 <오케안>문화여가센터에서 광복절 78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코르사코브구역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시장, 코르사코브구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이하 한인회) 이 블라디미르 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대행 등은 행사를 찾아온 수많은 시민들을 맞아주었다. 한인디아스포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방한인회 회원들은 이날 시행정부와 사할린주한인회,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포상되었다.

행사는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청소년부의 단막극으로 시작되었다. 단막극은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된 부모를 따라 사할린에 오게 된 소녀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이날 한인회 소속인 <미니말> 사물놀이팀, "SOUL DANCE"댄스팀, 보컬 팀, <에트노스>예술학교의 무용단, 코르사코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가수과 케이 팝 댄스팀들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오케안>센터의 소강당실에는 '한글'사할린주창작회가 준비한 다도, 민화, 한복 입기 체험실이 펼쳐졌고 야외에서는 한민족 놀이, 줄다리기, 노래방 등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요리사들이 준비한 해물탕, 파전,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 김밥 등 맛있는 한국 요리도 맛볼 수 있었다.

동포 1세 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었고 추천과 포토존이 준비되었다고 주최측이 전해왔다.



(김 울리아, 코르사코브구역한인디아스포라협회 운영위 위원) (사진: 코르사코브구역한인디아스포라협회 제공)

광복절 기념 체스 대회 열려

지난 8월 12~13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한인디아스포라 속기 체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사할린주 체스연맹이 주최하고 동포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는데 스위스 시스템으로 이를 동안 9라운드에 걸쳐 27명의 체스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경쟁했다.

이 토너먼트는 젊은 체스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인정받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 상을 차지했다. 우승자는 정 드미트리. 밤비조 미하일을 확률 싸움에서 이겨냈다. 밤비조 미하일은 같은 점수를 얻었지만 부호홀츠 계수에 의해 드미트리에게 1위를 빼앗겼다. 3위는 대회 첫날 선두를 달렸던 신 알베르트에게 돌아갔다. 베테랑 중에서는 김석강이 우승을 차지했고, 여성부에서는 공 알리나, 학생부에서는 신 보리스가 우승을 차지했다.

모든 수상자와 입상자에게는 메달,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었다. 사할린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체스 선수들 간의 속기 체스 대회 우승컵은 최종 우승자에게 전달되었다.



스폰서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많은 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회 주최측은 상금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 총 10명의 참가자에게 상금이 수여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 림종환) (사진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стречаем Сахалин

С 12 по 21 августа 2023 года в Сеуле на Инсадоне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работ Ли Е Сика (Михаила Львовича),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 Незаписанная истор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지구촌동포연대) при поддержке Музея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식민지역사박물관). Во вторник, 15 августа, в галерее «Индекс», где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нашего коллеги, на встречу с автором собрались лидер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вязанных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ехавшие на ПМЖ в Корею, фотохудожники, которым интересно твор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астера, люди,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ные с Сахали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и просто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Еще до начала встречи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а получать сообщения из Кореи, что люди собираются на встречу. 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закончилась встреча, стали приходить фотоотчеты с выставки.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знакомые лица, которые неравнодушны к творчеству нашего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и сам Ли Е Сик, который не ожидал такого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гостей на встрече. Многим гостям просто не хватило стульев.

Это не первая выставка мастера черно-белой фотограф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этот раз она приурочена к 20-ле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KIN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Сахалина. Было выставлено более 30 работ,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выставляется впервые. Посвящена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у,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в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курсах при Холмском отделении РООСК Ли Тин Сон (Евгения Михайловна) пришла на встречу с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Ли Е Сик в составе группы переселенцев 2023 г. (Инчхон).

– Встреча с автором и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рошли в очень тёплой, душев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чень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и информативная выставка. Потрясающие фотографии сахалинцев и виды сахалинской природы. Особен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произвели на нас фото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связанных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Лица людей, их эмоции в моменте...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остаться равнодушными.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узнаешь знакомых и знаешь их лично. Выставка тронула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 поделилась Ли Тин Сон.

Для Ли Тин Сон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встрече Ким Бон Не (김봉녀), 1935 г.р,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МЖ-2023, уроженки Сахалина,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пос. Тельновский), которая под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фотографий автора поделилась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расправе японцев над ее отцом 21 августа 1945 г.

Ведущей встречи стала директор галереи Индекс, фотохудожник Ким Ди Ен, не раз приезжавшая на Сахалин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KIN.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ки проделал лидер организации KIN Че Сан Гу.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12 августа, выставку посетили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К, а также члены сеуль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а помощи корейцам "Номо" и дру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1 августа 2023 г.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м Эльвира, Ким Сон Джон)

В честь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прошел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12-13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турнир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Турнир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ЮСМОСК) и Шахматной федер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понсоров-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течении двух дней в 9 турах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27 шахматистов состязались за победу в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Ден Дмитрий, опередивший лишь по коэффициентам Бамбизо Михаила. Бамбизо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Третье место у Син Альберта, лидера первого дн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первенство одержал Ким Сок Кан, женщин – Гон Алина, школьников - Син Борис.

Все призеры и победители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ями, грамотами и и денежными призами. Главному победителю вручен кубок победителя турнира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солидной поддержке спонсоров получился хорош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и организаторы турнира расширили получателей призов. Всего призы вручили 10 участникам.



Отметим, что турнир показал возросшее мастерство молодых шахматистов. Они составили силь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и заня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потеснив признанных мастеров с призовых мест, а Бамбизо Михаил, набрав одинаковое количество очков, лишь по коэффициенту Бухгольца уступил 1 место Ден Дмитрию.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здравляют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изёров с завершением состязания, желают успехов в освоении тонкостей этой древнейшей игры.

Лим Ден Хван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С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2-ой фестиваль «Рамен»

12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открытой территории ТЦ «Аллея»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фестиваль «Рамен»,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овщицы из Японии Ким Ён Гым, представивш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После чего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слова сказ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ОСК «Сахалин ханин» Алексей Чен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Наталья Ю, являющиеся идейными вдохновителя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депута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Боровиков, которы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в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знан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спортив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подтверждении этих слов прош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тхэквондо, дансудо и других дисциплин. Воспитанники и тренеры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СК «Россия», сахалинских федераций ММА и тхэквондо МФ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в приемах самообороны, разбиванию предметов из дерева, кирпича, гранитного камня, сгибанию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прута.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выглядели очень захватывающими и зрелищными, а демонстрация мастерства президентом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Ан Сухаги,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м федерации ММА Николая Мухина вызвали особое неподдельное чувство восхищения.

Очень колоритным и насыщенным выдался фестиваль благодаря этническим музыкальным и танцевальным группам. Гостей радовали киргиз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атарской диаспоры, певцы и танцоры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ачиная от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танцев, заканчивая современным К-поп. Зрители тепло приним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ллективов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Химан» и «Ариран»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красивых «дегори, чима». С знаменитой корейской песней «Цветочный вагон» выступил хор «Мугунхва» пр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м Ден Хван). Многих тронуло дуэтное исполнение песни «좋아» (Хорошо). Марина Со и Михаил У – не просто исполнители песни, они входят в актив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Ханин», являясь одними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твор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Рамен». Михаил, к тому же, уже второй год является ведущим фестиваля. Ему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на площадке поистине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Ну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а фестивале «Рамен», конечно же рамен.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разные виды рамен. Острую, не острую, на любой вкус.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ах по поеданию острой лапши, по-

бедителей которых ожидали призы. Работали торговые ряды, где также можно было попробовать и приобрести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не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собрал около 1500 человек, и в этот раз собралось множество любителей эт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блюд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оказалось немало приезжих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НГ. Последние были в восторге от происходящего. "Именно таким мы помним Сахалин, со вкусом фестиваля «Рамен»,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гостей.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этот день было съедено 30 коробок рамена для варки, это около 1000 порций, плюс рамен в стаканчике 11 коробок, 222 порции.

Ярких красок в мероприятие добавил мастер класс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коллективов «Химан» и «Ариран», вслед за которыми даже возрастные зрители поднимались и начинали танцевать. Красочные наряды ханбок, традиционные песни и танцы, вкуснейшие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мастеров корейских единоборств – все это создавало потрясающую атмосферу на фестивале, не побывав на котором,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где-то кроме Кореи могут настолько точно переда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народа. Что отметили даже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из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 журналисты телекомпании MBC.

Я впервые побывал на подобном фестивале на Сахалине. На мой взгляд, мероприятие выдалось потрясающим, колоритным и полным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Инга Кузьминска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отметили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15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в же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хва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78-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2 тыс. челове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участники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члены их семе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различных кругов. Церемония проходила под слоганом «Путь к свободе великого народа». В её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почтение памят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каз видео на тему праздник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речь, концерт, исполнение песен, посвящённых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и другое. Сто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за вклад в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водится движение по вывешива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Тхэгыкки.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лены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и патрио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организовали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зарубежных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 регионах,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акже подготовлены торжественные церемонии, концерты, специальные выставки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70 тыс. человек.

В РК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13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бабочек, посвящённый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за день до Дня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Приглашённая на фестиваль бабушка Ли Ён Су заявила, чт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призывала Японию к официальному покаянию и выплате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компенсаций пострадавшим.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ратитьс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уд (ICJ) для «пол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по вопросу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то же время женщина выступает за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с соседней Японией после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женщин,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и На Ён заявила, что призывы бабушки Ким Хак Сун, одной из жертв бесчинст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разбудили» таких же как она пострадавших, вызвали отклик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внесли вклад в объединение усилий ради перемен.

Hyundai Group получила семь наград в рамках премии Red Dot Award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Hyundai Group завоевал сразу семь наград премии Red Dot Award, ежегодно вручаемой в Берли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это один из трёх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в области дизайна наряду с немецкой iF Design Award и американской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Модель N Vision 74 компании Hyundai Motor отмечена в номинации «мобильность-перевозки» в категории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дизай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ccNC infotainment system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в номинации «UI/UX-дизайн» в категории бренд-дизайн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Шрифт Hyundai Sans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в 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в номинации «типография». Помимо этого, дизайн-концепция Kia Opposites United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ccNC, впервые установленная на EV9,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в номинациях «выставочный дизайн» и «UI/UX-дизайн» категории бренд-дизайн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В номинациях «приложения» и «выставочный дизайн» в категории бренд-дизайн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отмечены единое приложение от марки Genesis «My Genesis» 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Genesis в рамках Seoul Mobility Show 2023.

Граждане РК обеспокоены ситуацией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75,2%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ражаю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ей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на 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растёт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который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проводит ежегодно по случаю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82,3% респондентов,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испытывают антипат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олитическому режим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Это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1 годом. 68,6%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Среди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они назвали реш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формирование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лажива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расширенное прорабатывание повестк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внутри страны. Между тем,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считает, что реши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е удастся. В опросе, проводившемся с 1 по 3 авгус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675 человек.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2,4%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RKI)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метили в Корсакове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по случаю 78-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шёл в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Океан» в Корсаков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Мэр округа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отметил, что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поистине народным праздником. Россия —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на, в ней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ценят и сохраняют культурное богатство каждого народа. «И в этот праздничный день я желаю всем добра, улыбок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едь именно это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крепкой дружбы», — заключил он.

За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лич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граждены: Ким Ён Гын, Ким Юлия и Че Гын Д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тмечены: Роман Хаецкий, Анна Писковец, О Юн А и Ким Мия.

«Для нас, корейцев, эта дата очень значима и памятна. События тех лет напоминают нам о том, что сплочённость и доверие друг к другу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общества. Каждый из нас — часть большого народа с богатой историей, мы с вами — одн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И это главная ценность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Желаю всем добра, благополучия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ладимир Ли.

Корсаковцев также поздрави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начался с Пролога, посвящённ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маленькой девочки, которая в те времена была насильно переселена на Сахалин и сейчас репатрирована Корею. Это было трогатель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 глубоким смыслом. Постановка переполнила зрителей эмоциями: молодость 1 корейского поколения, тяжесть и лишения, радость от встреч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надежды и чаяния тех, кто не дождался до этих времен и радость, от того, что нить времени не прервалась, а воплощается в нынешнем молодом поколен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Проло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го сектора Ассоциации (танцоры, барабанщики, вокалисты), а также все желающие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участников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дополнили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В холле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твор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Хангыль».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минхва — корейско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секреты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го чаепития и дегустация сладостей, привлекли как детей так и взрослых.

Был накрыт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юди могли поигр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попеть в караок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конкурсах и лотерее.

На улиц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опроб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от профес-



Фотограф Инга Кузьминская.

сиональных поваров — хемультан, токпокки, пибим-пап, пульгоги, кимпаб, падён, а также всеми любимые шашлык и плов.

(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или: Юлия Ким, Анжела Пе) (Фотографи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через 100 лет. Корея, родина мечты»

14 августа на Сеуль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с высочайшей честью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ероя Чхве Дже Хёна и его супруги Цой Елены Петровны под лозунгом «Воссоединение через 100 лет. Корея, родина мечты»



Останки Чхве Дже Хёна, убитого японцами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7 апреля 1920 года, не сохранились. В их символической роли выступила российская земля, взятая возле дома в г. Уссурийске по адресу Володарского 38, где жил и трудился Чхве Джэ Хён и где сейчас открыт музей его имени. Останки Цой Елены Петровны были эксгумированы и перевезены из Киргизии, где она жила и скончалась в 1952 году.

В Чхунчхоне пройдёт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тхэквондо

Всемирная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WT),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до и мэрия города Чхунчхона проводят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тхэквондо Канвон-Чхунчхон».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8 по 24 августа в районе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Songam Sports Town в Чхунчхон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ут сразу четыре мероприятия, одобренные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ей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них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пляжному тхэквондо, Octagon Diamond Games,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мастеров, турнир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первые.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дали 5.700 спортсмен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63 стран. 19 августа на главном стадионе Songam Sports Town состоится K-POP концерт. Там же красочное шоу покажет пилотажная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Black Eagles. Помимо этого,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ярмарки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нет частью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Министром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Валерием Фальковым посетили научные институ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ысоко оценил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Научное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интегрировано в город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 станет открытым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годня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посещают порядка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год. Ожидается, чт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его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возрастет и любоваться уникальными растениями смогут до 50 тысяч посетителей.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и площадь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и гармонично связать его с «Горным воздухом».

–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 жемчужина Сахалина, и его красота должна быть доступна всем. Мы несколько лет добивались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чтобы открыть научный институт-сад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И теперь он становится еще одн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где будет гулять, отдыхать, посещать экскурсии и познавать новое сахалинцы и туристы. Мы хотим создать здесь молодежную научную лабораторию и привлечь увлеченных ботаникой ребят,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Уже выполнен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бновлению внешнего вида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Завершается замена ограждения, обустроен газон и высажены цветы,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подсветке деревьев.

–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ем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х троп. В будущем южносахалинцы через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смогут попасть н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горожане и гост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могли увидеть уник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лоры, тщат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ами учреждения. После эти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станет замечательным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как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но со своей спецификой. Сюда смогут приходить горожане и наслаждаться природой, посещать экскурсии, чтобы больше знать про свой родной край,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ервый этап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завершится уже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д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Крупнотравье», где разместятся музей, лаборатория, конференц-зал, выставочный и лекционный залы.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ад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ранжерея тропических и субтропических растений.

– Есть две основных задачи. Одна из них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ет Указу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оторый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ки.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сто, результат труда целых поколений, и, конечно, все это богатство должно быть открыто горожанам и туристам, чтобы все 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обранной здесь коллекцией. Не каждый город России может таким похвастатьс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 Вторая задача – это во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в науку.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нужно больше молод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Сейчас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рорабатываем идею открытия здесь молодеж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У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на Сахалине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главой Минобрнауки РФ посетили также Институт морской геологии и геофизи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АН (ИМГиГ ДВО РАН) и Специальн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средств автоматизации мор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КБ С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АН.

Институт морской геологии и геофизики – одно из старейши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не тольк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десь работают 10 докторов наук и 32 кандидата наук, около 40 процентов сотрудников – молодые уче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ют природные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 цунами, землетрясения, извержения вулканов – и вырабатывают методики их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тектон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ажны при разведке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ефти и газа на Сахалине. Также ученые изучают изменение объема льда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и Татарском проливе, образования следа циклонов по колебанию температуры морской воды, возрастные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ы деревьев в вулкан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Институт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рядом крупн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Финальным объектом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по научным институтам стал СКБ САМИ. В состав учреждения входят научные и конструктор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опытно-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а также гидрофизические стационары на побережье Итуруп. Ученые занимаются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ми и приклад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океанологии, изучают опасные морские я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мореплавания. На базе бюро создаются гидроаку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а также изделия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 аналоги иностр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У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на Сахалине –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Я вижу, что регион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под задачи этого развития организуется наука. Мы побывали сегодня во всех институтах в регионе,

которые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 Министерству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И у меня осталось очень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Я уверен, что научные институты и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е сами по себе, в отрыве от реальных проблем, а они будут интегрированы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ая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 регион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его команды. И Минобрнауки РФ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звитие нау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Более 12 млн рублей направили на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гио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де д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Поддерж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Размер пособия составляет 57 438 рублей. Также существует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в размер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в этом году – 20 880 рублей. Такая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з учета дохода семьи.

Наталья Лукьянен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ае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воспитывает восьмилетнюю дочку Алину.

– О том, что у нас есть такая хорошая поддержка, я узнала, еще когда была студенткой техникума. Сейчас я учусь очно в СахГУ. Мы снимаем с дочкой квартиру, эти средства мы тратим на продукты, одежду 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Также выплаты помогают оплачивать детский лагерь,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Денежное пособие в размер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одному из родителей, с которым проживает ребенок, без учета дохода семьи.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назначается с 1 сентября по 31 мая, а после сдач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ттестации – с 1 июня.

– Выплата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студенческая семья, где оба родителя либо одинокий родитель являются студентами и обучаю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раст родителей значения не имеет. Гла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 очная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де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а Макарова.

Для назначения пособия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ли оформить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Набор документов минимальный – паспорт и реквизиты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Ост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 запросят в рамках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роме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и ежемесячной денежных выпла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есть и друг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Льготы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и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рассчитываю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В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ыплату ежемесячного пособия в 2022 году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32,2 млн рублей. На 2023 год предусмотрено 31,4 млн рублей.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на данны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о 12,5 млн рублей на 148 детей.

В пят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 рамках «1000 дворов»

Работы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лностью закончен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Смирн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еображают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1000 дворов»,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всему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новый облик приобрел двор на улице Карла Маркса, 22.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двор в районе дома № 15 на 60 лет Октября. В Смирных работы завершились на Западной, 10 и Чехова, 1. Здесь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и тротуары, обустроили места для парковки, установили освещение и лавочки, озеленили территорию. В Корсакове на улице 2-ой микрорайон появилась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 выполнен во дворе дома на улице Физкультурной, 12 в Ногликах. Тут появилась баскетбольная и детская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и, а также площадка со спортив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ридомовую территорию приспособили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жителей – понижены бордюры, уложена тактильная плитка.

– Мы очень ждали обновления нашего двора. Наконец,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удобное, красивое и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Здесь мы сможем проводить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общаться,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отдыхать. Больше всего радости у детей. Для них тут и горка, и качели, и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Ноглик Галина Дроздов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еобразились уже четыре двора: Пуржаева, 112, Бумажная, 22, Комсомольская, 298 и 296А.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на Курильской, 5, Авиационной, 72, 2-ой Пионерской, 60 в Луговом и Бориса Полевого в Дальне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в Аниве, Макаров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 По опыту прошлых лет активное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приходится на конец сентября. Сроки зависят от объем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абот – их перечень индивидуален для каждого двора. В программе уча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по площади и наполнению территории. В основном проводится ремонт покрытий проездов и тротуаров, об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овочных мест, установка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устройство освещения и озеленение дворов,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контролируют ход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воих дворов. Замеча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подрядчику напрямую, озвучить на горячей линии ЖКХ: 8 (800) 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Обратиться также можно через WhatsApp: 8 (924) 884-42-03.

Отметим, что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не только в рамках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но и текущих. По проекту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обновляют дворы.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сами заявляю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монта. В 2023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1200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молодёжном центре развития компетенций «Острова карьеры» на Сахалине сформируют базу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События 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ектом по создан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омпетенций молодёжи «Острова карьеры». Росмолодёжь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 по созданию круглогодичных центров компетенций молодёжи,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ого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30 августа.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в России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сеть многопрофильных круглогодичных центров компетенций молодёжи с необходим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непрерывн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молодых людей.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уже доказали круглогодич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центры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Мастерская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Центр Знаний «Машук» и Академия твор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й «Меганом». С учётом работы этих центров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и запущен конкурс.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нём подали 16 субъектов.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не менее 10 таких центров в стране. Росмолодёжь поможет регионам в обучении команд, привлечении экспер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проведении профи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такж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на острове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омпетенций.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15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благодаря круп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роектам. Центр соберёт самых опытных кадро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молодёжью сформируют базу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по развитию карьеры. Всем, кто желает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 по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квалификацию, найти работу 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талант,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применен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России.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компетенций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страну первоклассными молод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что станет новым факто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Сахалин очень быстро и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тся,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здаются рабочие места. Я уже обща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риехали просто посмотреть, поговорить, но многие – с интересом смотрят на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ться здесь,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Сейчас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компетенций работает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Его первыми посетителям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Росмолодёжи «ОстроVa»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 них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бывать в центре, но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его создании по итога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форума.

Руководство региона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карьерные устремлени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2022 году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Заработаем вместе», созданн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и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одобр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Можно разрабатывать любые амбициозные планы, но, если не найдетс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х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ы останутся на бумаге. Поэтому мы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решаем кадровую проблему.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в которых нуждается наша экономика, помогаем не только сдел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арьеру: у нас должна быть создана полноценная система мер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обзавестись жильем, решить ряд бытовых вопросов. Только таким способом можно сократить отток населения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влечь нужных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людей с материк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осмолодёжь.События – специальная платформа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Росмолодёжь),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все события и мероприятия ведомства и партнёров. Платформа включает ка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линейку форумов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События), так 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масштабные собы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гражданского участия #МЫВМЕСТЕ, Фестиваль детства и юности «Большая перемена» и друг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독립유공자 유족 등 2천명 참석 100명에 독립유공자 포상

(서울=연합뉴스)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중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300명 정도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일상회복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고(故) 이희승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시 '영광뿐이다'를 배우 유동근이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주제영상은 일류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통해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창조와 번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경축공연으로 비보이 세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퓨전

엠씨가 경쾌한 독립군가를 배경음악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와 새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을 노래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신세계' 대합창도 이어지는데 바리톤 김동규 등이 참여한다.

만세삼창은 배우 유동근, 프라미스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축식장에서는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이 직접 수여된다.

한편 경축식장 입구에는 태극기, 무궁화, 국새 등 국가상징을 전시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광복절을 맞아 각 기관 누리집과 자치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서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를 마련했다.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행사, 광복절 기념 공연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축식, 타종행사, 문화공연,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사에는 모두 7만명이 참여한다.

"제2의 관동대지진" 사할린 조선인 학살 기밀 문서 입수

■ 광복은 비극의 시작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지만 화태(현재 러시아 사할린)에서 광복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해방을 맞은 사할린 미즈호 마을. 광복 전까지 강제 동원 등으로 끌려간 조선인과 정착한 일본인들은 이웃으로 지냈지만 광복이 되자 상황은 360도 달라졌다. 1945년 8월 20일부터 미즈호 마을은 옛 새동 안 생지옥으로 변했다. 일본인 민간인들은 한인들이 '소련의 스파이 짓'을 해서 전쟁에 졌다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해방둥이인 6개월 된 갓난 아기 등 무고한 조선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사건 발생 11개월이 지나서 소련의 사체 발굴 작업과 조사가 진행됐다. 소련의 재판 기록에 남아 있던 흐릿한 사진 특히 6달 아기 등 일가족 살해 사건의 현장 사진들은 대부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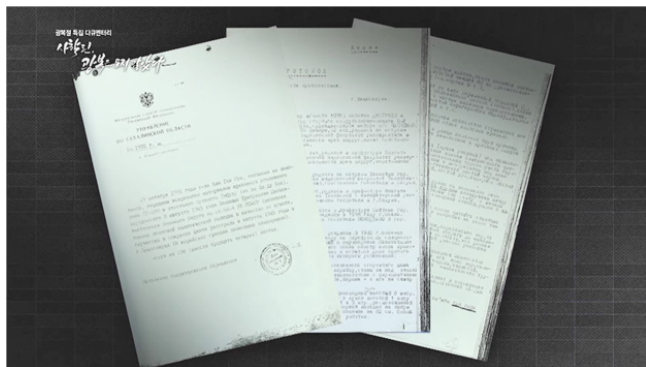
■ KBS, 러 기밀 해제 문서 단독 입수... 진상 규명 탄력

광복 직후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한인들은 사할린 곳곳에서 일본 경찰과 군,민간인 등에 집단 학살됐다. 10여 년 전 정부가 일부 진상 규명을 했다. 하지만 일제의 조직적인 개입 등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추적하고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 학살 사건 심문 조서와 재판 기록물 등의 문건들이 기밀 해제됐고 사할린 한인회 등이 이를 입수했다. KBS는 2019년 당시 광복절 특집 탐사 다큐멘터리였던 '사할린, 광복은 오지 않았다'를 제작하면서 전

문가들과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관련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구 소련 정부의 비밀 공식 문서가 나오면서 진상 규명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수풀 사이에서 발견된 희생자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 3장도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광복 직후 일본인들에게 살해된 조선인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할린 옛 에스토르 지구의 서해안 어촌 마을인 우씨로 마을에서 발생했다.

또 조선인들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운 혐의자의 체포 결정서와 일본 경찰 밀정의 한자 이름도 문서들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당시 KBS와 다큐 제작 과정에서 협업했던 사할린 향토박물관 진 율리아 박사는 기밀 해제된 문서를 입수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할린에서 학살된 무명의 모든 한인 희생자들의 이름을 밝혀내고 이런 사건들을 연구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가 끈질긴 추적을 통해 미즈호 마을의 학살 희생자가 정부 조사 결과인 27명보다 많은 최소 35명이 넘는다는 증거들도 확인해 이번 문서들과 함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사할린 카미시카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인 18명을 살해했다는 문서와 일본군의 방화와 살해 등 문건도 추가 입수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할린 학살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방일권 교수는 "(학살 이유는)일본 군국주의와(패전)마지막 상황에서 일본 식민 체계의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스파이 설이나 민족적 차별,군국주의적 작동 체계 이런 것들이(대량 학살)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탄압을 당했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저항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치안 유지와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학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기록에서 이들이 반성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카미시카 학살 사건 등 곳곳 학살 증거...진상 규명 '지부진'

일본이 패망 직후 사할린 한인들을 학살한 대표적인 사

건은 미즈호와 카미시카 사건이 있다. 모두 무고한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무차별 살해했다. 제노사이드였다. 카미시카 학살 사건은 국경 인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조선인 등 18명을 카미시카(옛 레오노도보)파출소에서 일본 경찰들이 총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이다. 특히 재판 기록 가운데 학살을 주도했던 일본 경찰들에 대한 체포명령서까지 발견됐지만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일본 경찰들의 행방은 7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서 KBS는 4년 전 다큐

제작 과정에서 현장 추적 등을 통해 학살 관련 증거를 하거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취재원들을 한국과 일본, 러시아 모스크바와 사할린 등지에서 수소문했다.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러시아 연방 기록관리청과 연방 보안국 FSB(구 KGB)등을 상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했다. 2년 넘게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때문에 이번에 추가 입수된 미즈호와 카미시카 사건 문건들을 통해 단서를 찾아 진상 규명의 실마리가 풀렸으면 한다. 아직도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진실은 묻혀 있다. 그래서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의 성격을 100년 전 발생한 '제2의 관동대지진'과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대형 지진이라는 재난의 공포 속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고 우물에 독을 뿌렸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학살 이유는? "조선인은 스파이"...전면 재조사 시급

오랫동안 묻혀 있던 이런 기록 등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봉인된 진실이었다. 학살 가해자들이 심문 조서 등을 통해 밝힌 살해 이유는 조선인들이 '소련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 기록만으로는 희생자의 정확한 명부도 파악할 수 없고 유족들의 추적도 힘든 상황이다. KBS는 국내는 물론 러시아와 일본에서 조선인 학살 사건을 기억

하는 이들을 찾아 일제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에는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 최소 만 6천여 명. 다른 지역보다 행방불명 등 미귀환 비율이 34.3%로 매우 높다. 일부는 징벌방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중 징용까지 당했다. 당시 소련 민정국도 일본 군경에 의한 한인 살해를 사할린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조사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의 강제 동원과 귀향길을 막은 소련, 이들을 외면한 조국 때문에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 동서 냉전이라는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부딪쳐야 했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조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도 사할린 곳곳에는 비극적인 역사의 현상이 남아 있다. 이산과 망향의 섬 사할린. 우리 역사의 질곡과 슬픔의 틈새 공간이지만 우리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졌다. 오늘도 사할린에서 행방불명된 부모 등 가족을 찾는 이들의 피 울음이 이어지고 있다.이제 국가는 더 늦기 전에 응답해야 한다. 역사는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비국민과 역적이라며 살해 위협까지 당했던 역사의 치열한 기록자 일본 하야시 에이다이 작가는 "과거의 역사에 눈을 감으면 잘못은 되풀이된다"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전면 재조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이름을 호명해야 한다.

(출처: KBS뉴스)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사할린에서 섬 해방을 위한 전투 재현

러시아 청년. 행사 플랫폼에 소속된 '오스트로바'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애국 활동 참가자들을 포함해 사할린주 주민과 방문객 100여 명이 전투 재현을 관람했다.

1945년 8월 11일-12일 한다스 경찰 초소 공습은 남 사할린 해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웅적 전투 중 하나였다. 적위대는 위도 50도 경계를 넘어 진입로의 첫째 요새를 마주쳤다. 5m마다 흠으로 높이 쌓아올린 초소들에는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북부에는 오각 초소 2개, 철조망, 탱크를 저지하는 구덩이와 급류의 강이 흘렀다. 이틀간 소비에트 병사들은 난공불락의 일본 요새를 공격했다.

장병들은 전례없는 용기를 발휘하며 적의 저항을 제압하고,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전투의 주요 사건들은 50분 가량 전쟁의 역사로 재구성됐다.

최대한 재구성해 재현한 전투는 실제 사건과 흡사했다. 전투 재현에서는 노동자 농민 적위대와 일본 제국군의 군복과 무장을 갖추었고, 생활용품과 탄약도 사용했다. 총기 유형은 빛과 소리로 탄약을 발사하는 권총을 사용했다. 유명한 모신 소총, 카빈 소총, 슈파긴 기관단총, 맥심과 데그차료브 기관총, 일본식 아리사카 소총 등이 활용됐다. 관람객들은 대전차 무기와 폭발물도 볼 수 있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찰대는 보리소브카 강 북쪽 강둑에서 적군과 마주쳐 전투가 시작됐다. 이후 적위대 소총부대가 지원하러 왔다. 전장에는 간호병과 전쟁 기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과거 영웅적인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사할린주를 비롯해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변경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боя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строва

Зрителями стали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участник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платформу Росмолодежь.События.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11-12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это одно из важнейших героических сражений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Тогда Красная армия, перейдя границу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столкнулась с первым укрепленным пунктом на своем пути. Пост был обнесен высоким земляным валом, где через каждые пять метров располагались бойницы, а с северной части – два пятиамбразурных ДОТа, колючая проволока,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й ров и бурная река.

Двое суток советские бойцы штурмов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приступный японский укрепленный район.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проявили небывалое мужество, смогли сломить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ротивника и взять этот пост. Ключевые события сражения легли в основу 50-минутно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Зрелищ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зили к реальным событиям. В бою использовали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и вооружение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предметы быта и амуницию солдат. Задействовали охлажденные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способные стрелять свето-звуковыми патронами. Это знаменитые винтовки и карабины Мосина, пистолеты-пулеметы Шпагина, пулеметы Максима и Дегтярёва, японская винтовка Арисака. Также зрители увидели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е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и пиро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По сценарию отделение разведки встретилось с соперником на северном берегу реки Борисовки, где завязался бой. На помощь советским солдатам пришло стрелковое отделение. На поле боя оказались санитары и военные журналисты. Чтобы воссоздать события героического прошлого, задействовали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человек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전 러시아 미디어 자원봉사단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사할린주 주민들을 '전 러시아 미디어 자원봉사단'에 초대한다. 이 기획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자신의 블로그를 비롯해 주제별 텔레그램 방송,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무료로 운영하며,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며, 역사, 과학,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 자신의 구독자들을 계몽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운영자들은 대규모 광고 예산에 접근이 금지돼 있으며, 꼭 필요한 지식과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 러시아 미디어 자원봉사단'의 목적은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하고, 방법을 지원하며, 첨단 기술을 교육하고, 소통과 경험 공유와 자신의 미디어 기획의 추진을 위해 단일 소셜망으로 통합하려는 데 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рпус медиаволонтеро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рпус медиаволонтеров». Инициаторы проекта отмечают, что сегодня в России живе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ведут свои блоги, тематические телеграмм-каналы и сайты. Многие из них совершенно безвозмездно, на идейных началах реализуют ту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вестку и ту социальную функцию, которая так необходима нашему государству, просвещая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в областях истории, науки,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Зачастую эти авторы лишены доступа к большим рекламным бюджетам, не имеют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знаний.

Задач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пуса медиаволонтеров» — дать им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ресурсы и инструменты, оказать метод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обучить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конечно, объединить в единую сеть для общени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своих медийных проекто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юро редакций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екретарь (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